

머리글

-자연과학자들의 세 가지 책임에 관하여-

여전히 근대정신의 낙관론과 마르크스주의의 진보론적 역사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Ernst Bloch가 「희망의 원리」(Das Prinzip Hoffnung)를 펴내면서 소위 ‘아직 아님(ein Noch-Nicht)의 존재론’에 기초하여 물질적이고 기술적인 유토피아를 제창한지 십여년쯤 지나 같은 유대계 독일철학자인 Hans Jonas는 그것에 대한 하나의 안티테제로 「책임의 원리」(Das Prinzip Verantwortung)를 공포하게 되었다. 생태윤리학의 기원을 이룬 이 책에서 Jonas는 Bloch가 내세운 자연의 개조(改造)를 통한 유토피아적 희망의 구호를 신랄히 비판하면서 이른바 기술윤리의 논제(tractatus technologico-ethicus)들을 표방하였다. Jonas가 제시하는 이 기술윤리에 따르면 기술은 인간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하는 문제보다 인간이 과연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그 일차적이고도 본질적 과제로 가진다. 그에 의하면 인간이 유토피아적인 세계 속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기술의 책임이나 과제가 아니라 어쩌면 기술과 기술자들이 내세우는 거짓된 예언이라고 공격하고, 이제 인간의 일차적인 관심은 그가 과연 인간으로 존속되어 가고 또 기존의 환경 속에서 존재할 수 있을지에 놓여져야 하며 이런 문제가 바로 테크놀로지의 책임이라고 한다. 그래서 Jonas는 이웃에 대한 선행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행위윤리를 근시안적이고 본질에 치우친 윤리라고 비판하고 원시안적이고 존재의

문제를 앞세운 후손과 자연에 대한 책임의 윤리를 주장한다. 사실 Bacon의 이상(Novus Atlantis) 이래로 등장한 모든 유토피아 이론은, 특히 오늘날의 자본주의적 이상과 과거 마르크스주의와 그것의 수정론인 Bloch의 사상 모두가 테크놀로지의 우상화(cult)에 근거해 있다. 이러한 사상에 의하면 모든 자연과학적 연구들은 Bacon이 'Knowledge is Power'라고 말한 그 명제에 잘 함축되어 있듯이 인간이 자연을 알고 그것을 정복하는 지식력(知識力)이 되며, 또 자연을 정복하여 인류를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수단으로서의 테크놀로지의 개발에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연과학은 자연을 알아서 정복하고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학문으로 인류사회의 물질적 번영을 위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이데올로기의 좌우(左右)를 떠나 오늘날 세속적 학문과 세속적 정신의 근거에 놓여 있는 명시적·암시적 자세이다. 세속적 학문정신의 이러한 경향 앞에 창조-타락-구속의 성경적 세계관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학문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기독교 자연과학자들은 학문적 변증과 전투의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 이런 전투적 자세와 아울러 기독교 자연과학자들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세 가지 과제 내지 책임을 지닌다.

첫째, 기독교자연과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세계와 질서 속에 담겨두신 오묘한 원리와 기이한 법칙들을 찾아내는 책임이 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어느 기독교 철학자의 말처럼 과학자들이 우주 속에서 찾는 모든 법칙과 원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때 세워두신 것들이다. 불신 과학자들이 그것들을 발견해도 역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원리이고 또 그들의 학문활동 역시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서 나온 지성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지성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모르고, 또 자기들이 찾은 법칙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알지 못하므로 결국 그 학문활동과 결과에서 하나님은 빠

지고 자기들만 내세우게 된다. 그래서 우주 속에 들어 있는 법칙과 원리들을 기독교 과학자들이 앞장서서 찾아야 할 이유와 책임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만이 우주 법칙의 진정한 출처와 그것의 진정한 의미와 뜻이 밝혀지기 때문이다.

둘째, 기독교 자연과학자들은 그 찾아낸 원리와 법칙을 바르게 해석하고 설명해야 한다. 우주 속에 담겨진 똑같은 원리와 법칙을 기독교 과학자와 불신과학자가 동시에 찾는다 하더라도 전자는 그것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를 보고 후자는 그것에서 무신론과 진화론의 원리를 끄집어 내는 것이다. 또 불신과학자들은 자기들이 찾아내고 발견한 것만 실제 세계를 구성한다고 본다. 말하자면 그들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기술되는 물리적 세계만이 영원하고 자족적이며 존재와 가치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독교 과학자들은 세속과학자들과 달리 이 물리적 세계 너머 영적이고 초월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며 또 이 지상세계는 저 초월세계와의 관계성 속에서만 의미와 의의가 있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또한 과학자들이 내세우는 기술과 전문지식보다 더한 진리가 있음을 아는 것이다.

나아가 세속과학자들은 세계의 모습을 자기들의 주관에 비치는 그대로 보지만 기독교과학자들은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세계관에 따라 창조-타락-구속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해석한다. 그들은 특히 세속과학자들이 보지 못하는 죄와 그 죄의 심각한 영향을 통찰하는 것이다.

세째, 기독교 자연과학자들은 바르게 해석하고 설명한 원리와 법칙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사랑을 위해 바르게 활용해야 한다.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세속과학자들은 자기들이 찾은 원리와 법칙으로 오로지 기술을 개발하고, 그 개발한 기술을 통하여 자연을 정복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그들에게는 그러한 기술이 궁극적으로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관심이 미약하든지 전무하다. 말하자

면 세속과학자들은 학문을 인격과 윤리에서 분리시키고 있다. 학문 연구를 인격에서 떼어 놓을 때 그 연구의 결과는 오용되거나 악용되기도 하고 또 우상이 되기도 한다. 인격과 분리된 학문은 때로 공포와 파괴의 수단이 되거나 무기화된 이데올로기로 나타나 인류를 그릇된 길로 이끌기도 했다. 우리는 인격과 분리된 근대 이래의 학문이 쉽게 자본주의나 공산주의의 도구가 되어 버린 것을 잘 보고 있다. 기술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그릇된 활용으로 인하여 오늘날 사람들은 테크놀로지의 전능성에 대한 일종의 종교적 신념같은 것을 지니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기술과 물질주의의 노예가 되어 그릇된 유토피아에의 환상에 젖어 있게 되었다. 세속과학자들은 자연을 통제하고 우주를 자기들의 통제에 따르도록 하는 복잡한 기법을 개발하고 나아가 그것에 기초한 거짓된 예언과 그릇된 역사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기독교 과학자들은 과학연구의 결과가 인간의 이기적 목적을 충족시키는 욕망성취의 도구로 전락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웃사랑과 인류의 형제애를 부추기는 도구로 쓰이도록 힘써야 한다. 그들이 개발한 기술로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거친 도구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보존하고 가꾸는 수단이 되며 또 인간이 영육간에 선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해야한다. 그들의 모든 학문적 노력은 어떻게든 창조주 하나님을 보이는 작은 작업들이 되어야 하며 그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을 보이게 하는 거울들이 되어야 한다. 사실 기독교의 지적 자산들은 광대하고 풍성하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자산들을 활용하고 끌어쓰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속적 학문과 비신앙적 사상의 거센 공격에 대항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독교 자연과학자들은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학문 연구를 해야하고 또 그들의 학문연구의 결과는 성경적 세계관을 선

포하는 것이어야 한다. 세속과학자들은 자기들의 연구로 인간을 때로는 허무주의나 혼돈으로 또 때로는 물질주의와 거짓된 유토피아 환상으로 이끌 때 기독교과학자들은 자기들의 연구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세계의 유한성과 피조성을 보여주며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욕망성취나 물질세계에 있는게 아니라 그것의 피안에 있다는 점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번 통합연구에 실린 모든 글은 앞에서 말한 이러한 기독교 자연과학자들의 책임을 잘 수행한 글들이라 사료된다. 앞에서 암시한 바대로 기독교 과학자들은 한편으로는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과학의 원리와 법칙을 찾고 설명하는 창조적 작업과 다른 한편으로는 세속적 세계관에 입각한 그릇된 과학의 주장들을 꾸짖는 변증적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여기에 소개하는 글 가운데 Richard Bube(Stanford University) 교수의 글은 첫 작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과 과학간의 관계를 규명하므로 기독교적 자연과학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양승훈, 권진혁, 김기태, 이광원 제 학자들의 글은 각기 과학사연구, 현대과학, 생물학적 환원주의, 신과학운동에 대한 기독교적 과학의 변증적 작업이다. 이들은 특히 최근 자연과학의 업적들에 대한 예리한 비판을 하므로 우리에게 이 분야들에 대한 바른 시각을 열어준다. 서평을 한 이춘환 교수와 고재형 형제도 우리에게 일목요연하고 집약된 안목을 제공해 주는데 큰 수고를 하였다. 이들 모두는 각기 다양한 자연과학의 분야에서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바른 학문을 연구하고 또 학문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세속학문과 싸우는 개척자들이며 투사들이다. 이러한 개척과 투쟁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깊은 신앙과 뜨거운 열망이 깔려 있다. 이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이 글을 맺어 보고자 한다: 하나님과 말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또 그것의 기초를 이룬다.

1992년 성탄절에

편집인 전광식